

“설교학의 대가 브라이언 채플의 설교노트를 공개합니다!”

이 책을 만나는 설교자들을 통해 한국 교회 강단의 부흥을 꿈꾼다!

“설교를 위한 설교로만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에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심을 우리는 다시 선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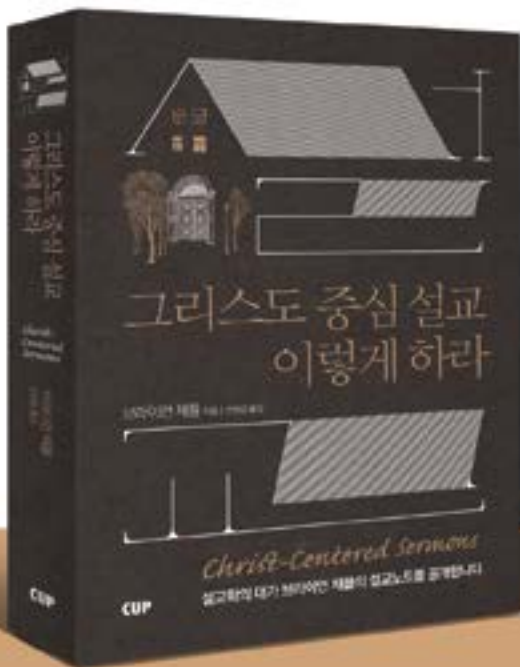
이동원 목사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

Christ-Centered Sermons
Models of Redemptive Preaching

브라이언 채플 안정임 옮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의 맥락으로
설교하는 비결을 담은
탁월하고 친절하며 감동적인 설교 지침서

이동원, 이성희, 박은조, 김은호, 이상훈, 황성건 목사 강력 추천!



기독교세계관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We envision a life uniting faith and scholarship within the Christian World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임무는 철저히 세속화된 물질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지성인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과 학문활동을 이끌어 가며 동시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한국 교계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학문, 교육, 경제, 정치, 예술, 스포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힘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적 세계관이 교회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지배적인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개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이 중요한 임무는 결코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따로 수행하기 어렵고 한 두 사람의 재능과 열심만으로 이룩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바쳐보려는 선한 마음들이 자신들의 지식, 지혜, 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고 종합하여 더욱 정교하고 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더욱 설득력 있게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장

이승로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변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세계관동역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후원회원으로 가입

월드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QR 코드로
바로 가입하러가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관 발행인 편집위원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회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황정희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주간 강원랜드 『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실행위원회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WORLDVIEW · FEBRUARY · 2016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



WORLDVIEW

2016년 2월호 WORLDVIEW 통권 188호



표지인을 진유영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지금도 자라고 있는 작가_진유영

- SPECIAL**
- 16 기획칼럼 종교개혁과 평신도_박상은
 - 18 기획칼럼 종교개혁의 전통과 교육개혁_김정효
 - 20 기획칼럼 디지털미디어 사회에서 바라본 마틴 루터의 '만민제사장주의'_강진구
 - 22 기획칼럼 종교개혁, 공정성과 합리성의 개혁_김태환

- COLUMN**
- 28 메디컬칼럼 Cure & Care Oxytocin_최현일
 - 31 묻고 답하다 유일한 위로를 어떻게 알 수 있나?_김현수
 - 36 시사문화큐티 Cure & Care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라!_추태화

- CONTENTS**
- 13 갤러리 빛위에 그리다
 - 25 그때 그랬지 전광식외 5인
 - 38 BE+Live+ 청년, 이규동의 이야기

- CULTURE**
- 42 땀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 56 유머 이상한 소설책_손봉호

- BOOK REVIEW**
- 44 서평 손양원의 옥중서신_유정춘
 - 48 서평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_이경직

- NEWS**
- 54 사무국 뉴스
 - 55 2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보조 이종원
사 진 신효영
일러스트 김규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페 이 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이매거진 m.worldview.or.kr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신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회화 작가, 진유영을 만나다 지금도 자라고 있는 작가, 진유영

살고 살아가는 관계 속, 나와 우리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재불작가, 진유영 작가.

빛과 어둠으로 진리를 그리는 일흔의 노(老) 작가와 오랜 바라기

김태황 실행위원장(명지대 교수), 그리고 본지 에디터 신호영이 만나다.

🎨 인터뷰어_김태황, 신호영



신효영
(이하 신)

환기미술관에서 열렸던 작가님의 개인전 《빛 위에 그리다》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유영
(이하 진)

저는 프랑스와 한국을 일 년에 두 번 정도씩 오가며 작업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빛 위에 그리다>는 작품 제목이기도 해요. 여기서의 빛은 완전한 빛, 진리를 말하는데 회화는 빛이 아닌 영역이기에 빛을 그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환기미술관에서 《빛 위에 그리다》라는 제목의 전시를 하는 동안,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모네, 빛을 그리다 展》이 열리고 있었어요. 모네가 그린 것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반사된 물체를 그린 것이지요. 저의 회화는 빛을 그리지 않고 빛을 가린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는 서로 대립되며 서로 침투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진실(true)을 통해 진리(Truth)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회화는 회화가 빛이 아님을, 빛을 가리는 어두움이라는 것을, 빛을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오히려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빛은 어두움(회화)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머금은 실체들이 작품에 드러나는데 저는 이것을 ‘빛송이’, 혹은 ‘땅에 있는 별’이라 부릅니다.

이번 전시는 1969년 프랑스 유학 이후 현재까지 45년 동안의 작업을 정리한 두 개의 연결된 스토리입니다. 첫 스토리는 1970년부터 1999년, <자아의 죽음에서 새로운 자아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스토리는 2000년부터 2015년, <회화의 위상과 영적 흐름>으로 두 스토리는 제 회화의 역사이자 삶의 여정입니다. 45년이란 시간 중 처음 30년은 제 자아가 죽는 긴 과정이었어요. 자아의 죽음, 그 과정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벨기에 시인이자 화가였던 앙리 미쇼(Henri Michaux)가 ‘나는 나의 여건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사람이 자유함 속에서 창작을 하려면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스토리에서는 작품의 화면이 작가의 은유적 신체라고 여겼죠. 이어서 두 번째 스토리에서는 은유의 차원을 벗어나 ‘회화는 어디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화의 위상을 물으며 존재 방식



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존재에 대한 사고는 어려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와 너, 나는 왜 나이고 너는 왜 너인가, 나는 왜 너가 아닌가 등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세상과 이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관계성 속에서 답을 찾아보던 것이 작업으로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회화도 존재적 회의의 맥락에서 회화에 대한 질문이 주제가 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방식 역시 나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신 존재,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혹시 젊은 나이에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에 유학하며 이방인으로 살았기에 더 깊어진 것은 아닐까요?

진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해 보니 1968년 좌익사태 난 바로 다음 해였어요. 가치 혁



명을 전후로 개념미술, 신사실, 누보레알리즘(Nouveau Realisme),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베엠펜터(B.M.P.T), 쉬포르-쉬르파스(Suport Surface) 등 새롭게 혁신적인 미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가장 진취적인 경향들이 만연한 이 물결의 커다란 흐름 속에 저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정체성, 작가로서의 위상을 구체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1970년, 그러한 저의 절실함 속에서 저의 첫 연작인 <하늘 바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을 분무기로 뿌려 그리고 그 위에 창을 뚫어, 보이는 화면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작품들과 부딪힌 충격들이 당시 저의 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 작가님의 환경, 68혁명 이후 폭발적인 문화 홍수의 시대에서 찾은 열쇠는 자신의 정체성 찾기였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정도의 차는 있지만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한국의 문화가 짧은 시간동안 너무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고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작가님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진 하나의 이해, 예는 될 수 있겠네요.

진 '영적'이란 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 대부분 '영적'이라는 발언을 하면, 대부분이 '형이상학적', 혹은 '정신적'이라는 말로 이해하거나, 종교적 영역의 좁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명료합니다. 일반적인 언어에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만, '영적'이라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적'이나 '정신적' 혹은 '종교적'이 의미하는 바를 넘어섭니다. '영적'이라는 단어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에게 '나'라는 대상이 있고요. 절대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소통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과 다르고, 진리의 실체인 열매가 있기에 '정신적'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더불어 나를 포함한 총체이기에 필연적으로 작품 속에 내가 드러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한계 없이 완전하신 자유를 묵상하게 되지요. 생명과 빛을 한 사람 안에 두신 그 비밀은 알 수 없으나 그 창조의 경이로운 감동 때문에 계속 창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신비한 소통의 연장선 사이에서 작품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창작 속의 신비는 서로 묘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작품은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신 ■ ■ ■ **묵상이 창의력의 통로가 되네요.**

진 ■ ■ ■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영적인 한 세계를 포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한다든지 독창적인 생각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작품과 함께 길을 가는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길을 가며 발견되고 버려지는 것이 드러납니다. 길을 완성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완이고,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또 작가로서 창작을 하고 있지만 저는 기독교 작가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회화에 있어 종교적인 언어를 배제합니다. 저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대한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어

요. 영적세계를 포착한다는 말은 신앙고백이라는 말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언어로 작품들이 제작되지만 저의 경우, '되어져가는' 작품 과정에서 복음이 발견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신 ■ ■ ■ 직접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작품에 충분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빛, 진리와 진실 작가님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담겼다고나 할까요? 작품에서 삶의 서늘함과 온화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진 ■ ■ ■ 아무래도 삶과 작업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범주가 화면이라는 물리적 캔버스의 실체 위에 구현될 수밖에 없죠.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끔 길이 없는 곳을 가야하기에 예상치 못한 험난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 언어로 제작된 작품이지만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회화와 빛-빛송이>라는 작품이 시작될 때 누가복음 18장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눅 18:9-14



숲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나뭇잎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그 때, 빛을 가리는 나뭇잎 때문에 더 강한 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 세리의 회개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빛을 가리는 자입니다. 빛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옆의 바리새인은 열심히 빛을 흉내 내며 기도하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빛은 한편으론 자신의 어두움을 고백하는 세리의 진실에 다가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론 빛을 흉내 내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그림으로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여기에 있어요. 어둠덩어리인 나에게 진리의 빛이 임할 때, 그 앞에 나의 어두움이 고백되고 그 빛이 나에게 스며들어옵니다.

신 많은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인 분들이 작품과 신앙고백의 교차로에서 술한 갈등을 합니다. 작품에 대한 갈등일 수도 있고요, 작가로서 믿지 않는 작가들과의 갈등, 믿는 자들의 예술에 대한 물이해로 빚어지는 갈등 등, 그들에게 이미 그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신 분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 저에게 갈등은 작품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씨름이 작품으로 발현됩니다. 저는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종교적인 언어를 배제합니다. 종교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알아듣는 작품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제 작업을 보든지 제가 말하는 것을 듣든지 ‘네가 크리스천이라 난 못 알아들겠다’ 하면 저는, 제 작업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의 언어로 우리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벽을 넘어야 해요. 그러려면 더 정확하고 예리해야 합니다. 언어를 더 단련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로움과 열정, 죽음 앞에 누려봐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를 의도적으로 차용하는 것이 오히려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작가이며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 작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



천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러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가 단 하나의 답이라 할 수는 없지요. 또 언젠가는 필요에 따라 저 또한 마지막 작품이 직접 복음이 소통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가 그것을 요구할 때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 ■ 아주 원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도대체 뭘까요? 모두가 예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술이 무엇인지 싶습니다.

진 ■ 그런 말이 있죠.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면 예술은 저만큼 가서 웃고 있다고. 좋은 예술이다 아니다 정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틀을 가지고 이러니까 예술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하는데, 예술자체에는 대단한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사고의 틀로는 좋다/아니다 단언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안목이 있지만 안목 너무 어두운 부분, 그 속에도 예술이 있거든요.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표출하길 절실히 바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확실히 좋은 작품은 있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무래도 계속 작품을 접하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 보는 것처럼 미술전시회든 음악회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보면 보통 극장이나 마켓 세일보다도 미술 전시장이나 음악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줄이 긴 것을 봅니다. 또 작은 월급에서도 작품을 자꾸만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그렇게 사는 것이 문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자꾸만 작품을 모으면서 보는 안목이 자라납니다. 작품을 살 때는 대부분 자기 내면의 필요에 답을 주는 작품을 사게 되거든요. 작품이 그 필요에 답을 해주고, 또 상황에 답을 해주기도 하고요. 거장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필요에 답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품은 보는 이에게도 그리고 작가에게도 생명체입니다.



진 ■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 저의 작품에 대한 이해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 ■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유영아, 그림은 하나님께 그려달라고 하고 너는 전도해라.’ 하셨습니다. 가끔은 국제전화로 ‘하나님이 요새 그림 잘 그리시냐?’ 물으셨는데 저는 농담 답아 ‘아니, 요새 별로 잘 안 그리시는데?’ 답했더랬죠. 저는 예술세계가 선교지라 생각해요. 작가도 그렇지만 작품 또한 선교사고요.

가끔 파리에서 열리는 큰 현대미술전시들을 볼 때 정말 섬□할 정도로 어둡고 침울할 때가 많습니다. 흑암의 영이 덮어버린 것 같은 예술세계는 가장 치열한 선교지 같아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타락된 본성이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이자 작가인 이들이 그곳에 작품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해요. 작가들이 더 묵상하고 씹고 소화해내어 그들의 언어로 너무나도 다양한 작품 속에서 우리의 관점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김 ■ 직접 선교사역도 하셨지요. 테러로 황폐해진 알제리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내면의 상처를 그림으로 표출하게끔 하는 미술치료 사역을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 ■ 2005년에 어떤 분의 요청으로 알제리 수도 외곽에 있는 도시와 중부 지방에 있는 사하라 지역에도 갔었습니다. 1996년에 테러가 있던 곳에서 당시 사춘기 초반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삼촌 등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참수당했던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천진난만한 사춘기 어린아이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아이들, 이들과 함께 미술작업을 했어요. 미술치료 해본 경험도 없지만, 먼저 그들의 언어와 감정을 회복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하라의 여성들에게는 현대미술을 타피스리와 수예품에 도입시켜서 그들의 안목을 새롭게 넓혀주는 시도를 했습니다.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주문해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창작에는 자유로움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자아의 죽음 끝에 마주한 자유처럼 말이죠. 알제리와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곳의 여성들에게,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는 자유함을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김 ■ 지금까지 작가로서의 인생이 45년이십니다. 회화의 방식도 많이 바뀌셨고요. 앞으로 어떤 작업으로 만나 볼 수 있을까요?

진 ■ 과거 작품의 화면이 나의 은유적 신체라면, 지금은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회화 방식으로 표출합니다. 밀랍분실 주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세한 조각을 할 때 초에다가 섬세하게 조각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입히고 구멍을 뚫고 첫물을 부으면 초가 녹고 녹은 그 자리에 쇠가 채워져 굳어집니다. 지금 하는 제 회화는 바로 화소분실 주조법이라 할 수 있겠죠. 디지털의 화소, 부동적이고 무관심한 화소의 죽음을 빼고 생동감 있고 투명한 수채 혹은 색연필로 작품에 생기를 불어 넣는 거지요. 생명력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새순이 나오는지 살피며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의 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 ■ 앞으로도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빛 위에 그리다. 2015

“빛은 완전한 빛, 진리입니다.

회화는 빛이 아닌 영역이기에 빛을 모방할 수 없지요.

빛과 빛을 가리는 어둠인 회화는 대립의 관계이면서

서로 침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화가 빛이 아님을,

빛을 가리는 어둠이라는 것을, 빛을 모방할 수 없음을 인정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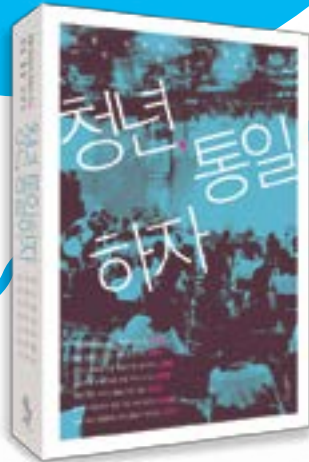
빛이 드러나 이 빛이 어둠, 회화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작가 : 진유영

청년, 통일 하자

열혈 청년들이 이루어 가는
리 열 · 통 일 · 이 야 기

통일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깨우고', 통일의 날을 살아가기 위해 '연습하며', 진정한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 저마다의 빛깔로 통일의 색을 입히며 이야기를 엮어 가는 아름다운 청춘들이 여기에 있다!



김경현 외 6인 지음
A5변형
272면
13,000원

'통일준비운동' 회오리를 몰고 다니는 **김경현**

통일 전후의 '사법적 회복'을 꿈꾸는 **정영지**

한반도 평화를 이룰 '통일 기업' 준비하는 **김진평**

통일의 날 위해 '다음 세대' 세워 나가는 **곽우정**

'통일 마중' 나가다 '통일 가정' 이룬 **가찬미**

중국의 심장에서 '통일 기도' 바람 일으킨 **방아름**

'남과 북의 재결합'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나주은**



WORLDVIEW SPECTATL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켰는가

교회를 지키려
사회를 버렸고
인간을 살리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장 위에 둔다며
교회 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잊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우리의 강함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가장 위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
우리의 개혁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약한 자를 존중하고
우리 안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권세는,
강한 자리가 아닌 우리의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종교개혁과 평신도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스스로 돌아보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해하는 종교개혁의 중심사상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 생각한다.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읽는 자들에게 주님과 소통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평등함을 일깨워 준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교회를 사고파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성직도 다분히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 건축을 위한 현금을 강조하고 이것이 하늘에 쌓아 두는 보물이라며 성도들을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경우도 허다히 경험하게 된다. 특히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되어 있는 교회의 신분체제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담임목사 중심의 교회 운영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직자도 있으며 직분이 마치 신분의 높낮이로 이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공동연재합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월드뷰 2016.1.30일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대신 성씨 뒤에 직급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회사에서뿐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장로, 권사, 집사 등의 호칭을 마치 계급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도 마치 교회에 목사-부목사-장로-권사-안수집사-집사 등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며, 성도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행태를 보게 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요, 자매이다. 또한 직분은 지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히 임하는 것이 옳은 마음가짐이라 생각된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과정에서도 목사가 아닌 평신도의 경우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정식으로 파송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정한 선교훈련을 마쳤고 파송되는 지역의 필요에 합당하다면 성직자나 평신도 모두 선교사로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30년 전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구분 없이 아름답게 동역한 역사를 보면 한층 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의료선교사, 교육선교사, 기술선교사 등 복음과 함께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또한 일상의 삶은 세속적이고 교회의 삶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어디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드러져야 할 것이다. 어찌면 주일보다 6일간의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치열한 영적 전쟁터일 수 있으며, 교회의 찬양시간 못지않게 직장에서도 정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쾌락에 휩싸인 회식문화를 바로잡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심방 다녀오는 길에 낙태시술을 받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 기업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기독교인이 결코 적지 않고, 자살이나 불륜, 이혼에 있어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며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민중을 현혹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세태가 되었다. 평형수가 실려야 할 공간에 돈을 벌기 위한 컨테이너가 쌓여 배는 평형을 잃어버리고 300명의 생명이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안전은 뒷전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상당수가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배운 신앙과 그들의 삶은 너무도 다른 것이다. 어떤 장로님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이라고 불렀더니 동시에 여러 명이 저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뉴스를 장식하는 사건마다 행여 목사, 장로가 주인공일까 봐 조마조마하다.

문제는 형식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내면일 것이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필자 부터라도 이제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박상은 안양 생명원 의료원장이자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오랜 동역으로 이사 및 〈월드뷰〉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종교개혁의 전통과 교육개혁

교육개혁으로서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의의는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종교개혁은 신앙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 교육개혁이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세속적 학문을 하는 아카데미가 교회를 위협한다고 여겨 폐쇄하였고 대신 성직자의 양성과 귀족교육을 위한 대성당학교와 수도원학교를 두게 되었다. 이들 학교들은 대학교육의 기초가 되었지만 당시 교육은 성직자와 귀족의 자녀에게만 제공되어 일반대중을 위한 문해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에 무지하였고 교육은 교회를 봉사하고 종교적 생활에 들어가는 교양을 습득하고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교권확장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조차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붕괴되기 시작하여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의 사제들은 초대교회 이후 은밀히 교육을 받아온 초대교회후예의 어린이들보다 무지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고 이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었다. 따라서 일반성도들의 성경이해를 위해서는 고전어성경은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했고 개인은 모국어를 습득하여야 했다. 또한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함을 의미했다. 루터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의무에 대해 설교했고 시장과 의원들에게는 학교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는 하나님이 위임한 세속적 정의와 질서를 관장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젊은이들의 교육을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루터가 생각한 교육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생행로에 적용하여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미있게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종교개혁당시에 생겨난 1) 모국어 학교(Venacular primary school)에서는 읽고 쓰기, 성경, 체육, 유희음악, 가사 등이 2) Latin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수사학, 법학, 변증법, 역사 등이 그리고 3) 대학에서는 전문직업훈련, 언어학, Aristoteles 저서 등이 강조되었다. 종교개혁을 위해 생긴 학교는 1) 개인적 성서연구 즉 성서를 읽고 배우기 위해서 뿐아니라 2) 올바른 사회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지적으로 깎아지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3)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었다. 루터는 하나님은 학교를 통하여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말할 정도였다. 당시 교육개혁은 영성과 지성과 실용적인 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을 탄생시켰고 인류사에서 근대식교육을 보편화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기독교와 교육개혁


우리나라 역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글성경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에서는 성경과 한글이 한자와 영어와 함께 가르쳐졌으며 예체능교육과 이과계통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오천석(1975)은 당시 기독교학교는 국어사용을 보편화하

고 서양신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양반과 서민 그리고 남녀를 차별없이 교육하여 계급사상을 철폐하고 평등사상을 확립하였고, 노동정신과 전인교육을 실천했으며 개인의 영달의 수단이었던 교육사상을 깨뜨리고 교육의 목적을 사회봉사에 두도록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매우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은 교육구국과 계몽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미션스쿨과 교회 학교들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사회 교회들은 이신칭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성장을 위한 전도는 강조했지만 정작 성도들 각자가 제사장적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이신칭의의 기쁨을 가진 성도는 성경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의 본과 제사장적 자기희생의 좁은 길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 종교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로마서는 이신칭의뿐 아니라 12장 이후에서 성도들이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신칭의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대신지불하셨다는 것뿐 아니라 죄에 반응하였던 옛 자아는 죽고 내주하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제 교회역사 130년이 되어가는 한국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신칭의의 열매를 삶에서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더욱 강하게 가르쳐야 한다.

탕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은 기독교학교교육에서도 드러난다. 대체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교육의 세속화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그동안 기독교학교는 일반교육과정에 성경과 예배시간을 더하는 식으로 교육하여 왔고 이러한 접근은 교육출세론과 같은 세속화에

학생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말았다. 기독교학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내용에 배어있는 물질주의와 교육출세론에 대해 무관심하며 단지 교세확장을 위한 전도의 채널로 학교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육내용은 중립적이지 않다. 철저히 그 시대의 철학, 사회학, 심리학에 기초한다. 현대의 학교 교육내용은 막시즘에 뿌리를 둔 비고츠키심리학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이 최신이론들의 흐름을 주관하고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과 여론을 형성하는 논거가 된다. 우리는 최근 교회에도 전하는 다양한 사회이슈들 즉 동성혼, 인권, 역사, 종교교육의 문제 등에 있어서 공적 논쟁의 자리에 적절한 논리와 용어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독교지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각 전문분야의 이론과 제도에 배어있는 비기독교적인 현상들을 분별하며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독교지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학교는 성경과 기독교철학이 학문의 기초를 이루도록 배치하여 가르쳐야 하고 각 학문과 과목들이 기반하는 세계관은 이를 근거로 검토되어 새롭게 가르쳐져야 한다. 교회학교는 더욱 철저히 기초적인 조직신학과 성경66권을 가르쳐서 성도각자가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기를 수 있도록 보다 수준높은 성경공부가 가르쳐져야 한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도 더 강하게 되어 순교를 하면서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종교개혁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늘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³⁴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롬 8: 37) 



김정효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이며 한국초등교육학회장과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또한 이대 부속초등학교 교장과 기독교학문연구학회 교육분과장을 지낸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 사회에서 바라본 마틴 루터의 ‘만인제사장주의’

우리는 다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서 성별을 받는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같은 나라이다”(9절)라고 말하고 또 계시록에 “당신은 당신의 피로써 저희를 제사장과 왕들이 되게 하셨나이다”(5:9-10)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다. (중략) 그러므로 주교가 성별할 때에 그것은 모두가 동등한 권능을 가진 모든 회중을 대신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권능을 행사하도록 맡겨 주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마치 다 같이 왕의 아들이고 동등한 상속자들인 열 형제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자기들 전체를 대신하여 유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들 중의 하나가 다스리는 직무를 맡고 있기는 하나 그들은 다 왕들이며,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일등 공신 가운데 하나는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8~1468)의 활판인쇄술이었다. 루터 사상의 핵심인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와 ‘만인제사장주의(Priesthood of All Believers)’가 교회 혁신에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을 통해 성경의 대량 보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필사하던 시절에는 사제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설사 성경을 구할 수 있다 해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기란 쉽지 않았다. 중세 시대의 성경은 동물의 피지(皮紙)를 이용해서 만든 필사본으로 성경 1권을 만드는 데 평균 85마리의 송아지와 4~5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루터는 사제들만의 특권처럼 여겨지던 성경을 만인이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중요한 과업을 수행했다. 하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번역된 독일어 성경을 당시 최첨단 미디어였던 활판인쇄술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한 일이었다. 당시 독일어는 민중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고, 활판인쇄술은 이제 막 서양문명의 새로운 기원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미디어였던 활판인쇄술을 구텐베르크는 오직 성경만을 인쇄하



¹⁾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 언급된 만인제사장주의 관련 내용이다. 지원용 역 (2008),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30쪽)

는 데 활용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에 결정적 발미를 제공했던 면죄부를 인쇄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구텐베르크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인쇄해서 돈을 버는 수완 좋은 사업가였다. 그러나 루터는 자칫 패역의 도구가 될 뻔한 인쇄술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교회개혁을 위해 선용하였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코앞에 둔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개혁의 필요성과 더불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에 버금가는 혁명적인 디지털미디어 시대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 일부는 루터가 그토록 개혁하고 싶어 했던 중세가톨릭의 사제중심적인 모습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담임목사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며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는 일반 회중과 소통하는 데 실패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패로 이어졌다. 루터의 개혁사상이 인쇄매체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 온 세상이 연결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통해 루터의 '만인제사장주의'를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세상을 대표하는 웹의 세계는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탈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 모든 만민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사회를 선도하는 웹혁명의 서술용어인 웹 2.0의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인 참여(participation), 공유(sharing), 개방(openness)이 21세기 목회와 선교 그리고 교회교육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임은 분명하다.²⁾ 이처럼 웹 3.0 시대를 논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한국교회가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맞게 만인제사장주의를 실현하려면 웹 2.0의 가치는 여전히 필요하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수의 회중을 이끄는 형태에

서 벗어나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개성과 능력, 소명에 따라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회중 다수가 교회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요구받고 있다는 웹 2.0의 가치를 넘어서, 개인이 가정과 직장 등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며 교육하는 맞춤형 사역이 웹 3.0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마치 인터넷 서점에서 그동안 내가 주문한 책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신간 서적 가운데서 읽을 만한 책을 골라 주는 맞춤형 서비스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역시 중세의 가톨릭처럼 성직자들이 주도해 왔다. 소수에게 권위에 집중된 교회가 웹 2.0과 웹 3.0의 가치를 실현시킬 때 교회끼리 경쟁하거나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사역하는 혁신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과 같은 기술결정론자의 주장이지만 혁명적인 미디어의 출현은 사회를 바꾸고 인간을 변화시키며 아울러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변화의 핵심 요체인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우리는 이미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을 선용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를 확인했다.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을 외치는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긴급한 숙제를 안게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 속에서 개혁주의적인 특징을 읽고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2 김영래 「웹2.0문화와 21세기 교회」, 윤영훈 엮음(2010), 『문화시대의 창의적 그리스도인』,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종교개혁, 공정성과 합리성의 개혁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핵심 자체에 던진 도전”이었다.¹⁾ 개혁이라고 언급하게 된 것은 당대의 로마 교회가 “도덕적인 타락과 문제들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²⁾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대중적인 사회 개혁이 아니라 올바른 교회의 회복이 목적이었다면 당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본지는 지난 1월호에서 종교개혁의 신학적 근거와 근본적인 원인과 정신을 살펴보았으므로, 이 글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종교개혁은 공정성을 회복하였다. 하나님의 품성이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공의라면 공정성은 인간 상호관계에 적용된다. 당대 로마 교회는 공정성의 그릇된 기준에 따라 성경과 신앙을 이용하였다. 이를테면 사제들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없이 그 해석을 따라오는 것만이 성경에 대한 공정한 관계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곡해한 것이다. ‘권위’를 내세워 신앙을 왜곡시키는 불공정한 게임을 정당화시켰던 것이다. 현대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지

만, 라틴어는 물론 독일어에 대한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보였을 수 있다. 마치 한 학생에게는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다른 학생에게는 시험범위조차도 모르도록 하면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합격이라고 공언하는 것과 같다. 종교개혁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은혜를 누리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종교개혁은 합리성을 회복하였다. 당대 로마 교회는 백성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었다. 십자가의 복음이 지성소의 율법을 완성하였고 성막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대제사장에게 독점화된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 일반 백성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로마 교회는 백성들의 이러한 접근성과 판단을 차단하였다. 로마 교회 사제들만이 합리적인 판단력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철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종교개혁을 통해 백성들은 복음을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받

1 마이클 리브스(2009), 『꺼지지 않는 불길』, 한글번역(2015), 복있는 사람, p.30)

2 이승구(2016),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월드뷰』, 2016년 1월호, p.29)



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복음에 근거하여 보다 가치 있고 유익하고 올바른 선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백성의 신앙심이 자동적으로 깊어지고, 사회적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주장은 아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에텐동산에서부터 아니 태초부터 이끌어 오신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신 역사적 한 과정이다. 에텐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직전 당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개혁되어야 할 본질적인 일탈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이전에 익숙했던 제도와 행동양식과 열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교회나 개인이 차단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개혁의 대상이 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최고이자 최선의 길이다.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길이다. 오늘날 교회에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 지향하는 바

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작동하는가? 이를테면 담임 목회자나 당회의 일방적 또는 독단적 판단이 교회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교회 지체들이 공정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개혁은 특정 종교 집단의 개혁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당대 일상적 삶의 개혁으로 확산되었다. 장기적으로 공정성과 합리성의 회복은 인본주의와 계몽주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태동으로 이어졌다. 종교개혁이 현대 자본주의로 발전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현재진행형이라면 현대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개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이다. 시대정신은 변한다. 그러나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근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공정한)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합리적)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실천하는 행동을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에서 새롭게 재확인하는 과정은 500년 전의 일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사안이기도 하다.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의 운영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_엡 3:17-19



칼빈의 목회와 윤리, 사회참여

저자 요한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 부흥과 개혁사 | 정가 16,000원

칼빈은 한 시대만의 인물이 아니다. 그는 중세의 부패한 로마 가톨릭교회를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개혁신학과 경건한 삶의 모범자로, 장로교회 창설자로, 그리고 서양근대화의 선구자로서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줄지 않을 것이다. 이동하는 병원이라고까지 불리던 칼빈은 그러한 자신의 유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면전에서(Coram Deo)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 중심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



존 칼빈의 유산

저자 데이비드 W. 홀 | 역자 김현수 | P&R(개혁주의신학사) | 정가 10,000원

원제 The Legacy of John Calvin: His Influence on the Modern World

본서는 '교육, 구제, 윤리, 교회의 자유, 의회, 공화정, 소명, 경제와 이윤추구, 시편 찬송, 아이디어 보급' 등 현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분야에 미친 칼빈의 공헌의 폭과 깊이와 영향을 생생하게, 또한 선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뿐 아니라 간명하지만 맛깔나게 칼빈의 생애와 우정, 서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무엇보다 그의 삶과 신학 기저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겸손의 아름다움을 감동스럽게 보여준다. 또한 기독교 복음주의의 다양한 전통(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독립교단, 국교회, 로마 가톨릭) 가운데에서 칼빈의 유산이 어떻게 찬란하게 드러나는지를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본서를 통해 참으로 하나님 중심적이며 성경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낙스의 정치 사상

저자 최선 | 그리스(한국로고스연구원) | 정가 15,000원

21세기 한국교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개혁의 요소들을 연구한 책. 한국교회가 여전히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적 영향 아래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성경을 벗어난 성장주의가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존 낙스의 개혁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경 중심과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회개할 것을 권고한다.



칼빈과 사회

저자 손봉호 등저 | 고신대학교개혁주의학술원 | 정가 10,000원

종교 개혁가 칼빈의 사상을 여러 각도에서 조망했다. 이 책은 고신대학교개혁주의학술원에서 펴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시리즈의 3편으로 『칼빈과 사회』를 다루고 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지향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면모에서 개혁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때문에 칼빈의 사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는데, 시리즈 3편인 이 책에서는 사회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 자유의지와 구원

저자 루터, 에라스무스 | 역자 김주한, 이성덕 | 두란노아카데미 | 정가 40,000원

원제 Luther and erasmus: free will and salvation

16세기 종교 개혁의 선구자는 단연 루터이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 루터의 역할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생각할 때마다, 종교 개혁자로서의 루터를 떠올린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의 모습은 루터가 감당했던 다양한 역할들 가운데 하나였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구원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공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구원의 관계성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수많은 의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즈음인가...

조성표 : 내 안경을 보니까 87년, 88년 전후 같습니다.
지금은 고신대 총장이 되신 전광식 교수님, 저(조성표),
같은 학교의 김중락 교수님,
캐나다 VIEW에 계신 양승훈 원장님,
성균관대 이간창 교수님, 그리고 신호기 간사님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아마도 예수원인가요?

양승훈 : 글세요, 나는 대전 갈릴리 수양관 같은데...
1987년,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수련회에서 찍은 사진 같습니다.

언젠가 오늘을 추억할 날이 오겠죠?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기독교 고전교육, 이중언어 유·초·중·고등 교육기관



SICA 학생 모집

- 입학설명회(유·초·중·고등) : 2월 17일(수) 오후 4시

장소 : SICA(서초구 양재동 363)

입학설명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입학설명회 후 학년 담당 교사와 면담 시간이 있습니다.

- 2016년 하반기 기숙 중·고등학교 개교(여주) 예정

모집 대상 : 8, 9학년

www.sicakorea.org

입학상담 02.557.7710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Oxytocin

묻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2)

유일한 위로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시사문화큐티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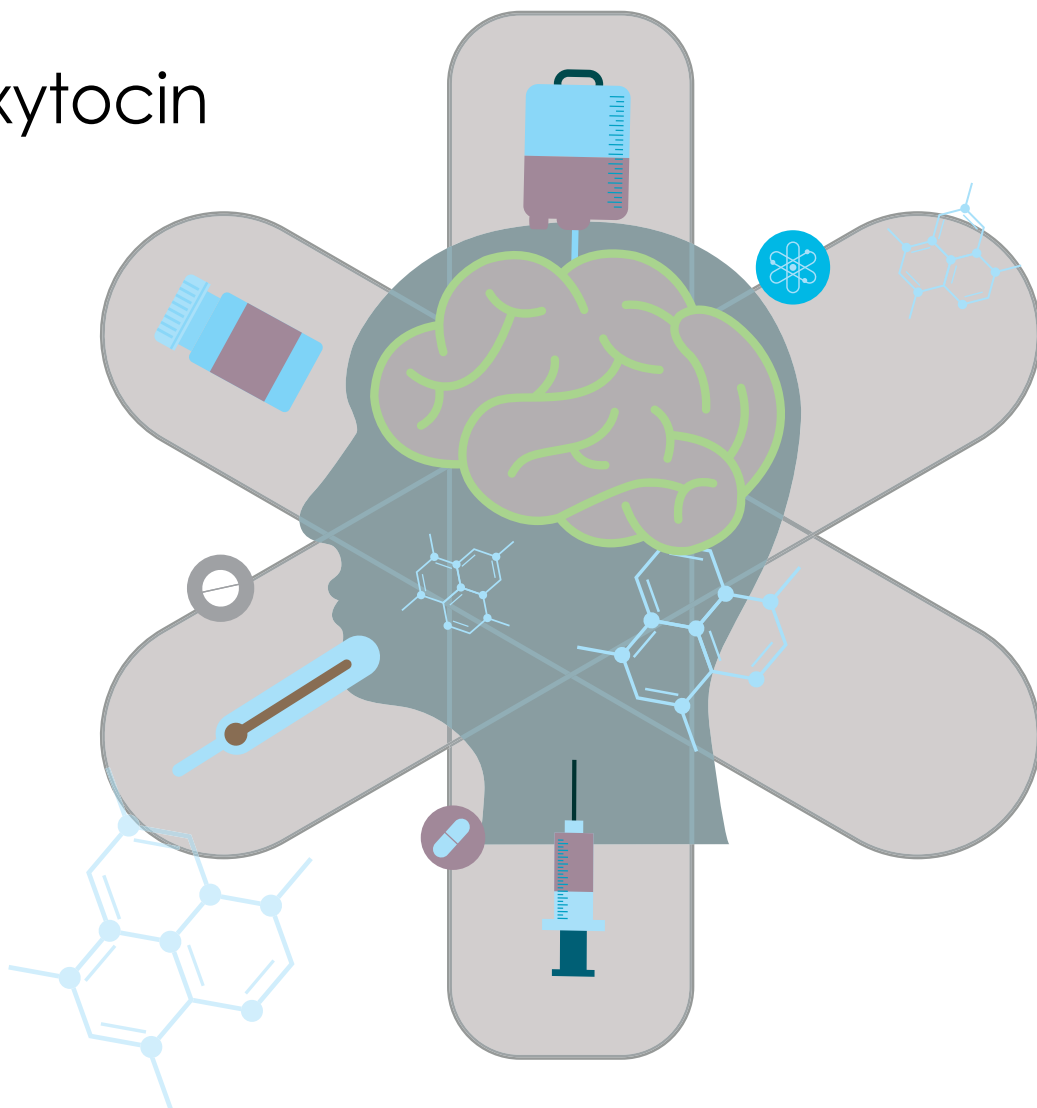
Be-Live-r

청년, 이규동의 이야기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만화로 읽는 피케티 21세기 자본

Oxytocin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 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 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 뇌의 한 가운데에 있다. 바로 뇌하수체라는 곳이다. 작지만 몸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고 있다. 나도 그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내이름은 옥시토신. 내 옆에는 우리 몸의 수분대사를 총괄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친구가 있다. 나는 호르몬이다. 흔히 자궁수축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자궁에만 관계되는 호르몬은 아니다.



나는 유즙 분비뿐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고 친밀함을 느끼며 관계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관여하는 상당히 정서적인 호르몬이다. 남자에게도 분비된다. 그리스어 '옥시'와 '토코스'에서 유래한 말로 '출산을 촉진 시키다'의 뜻을 갖고 있다. 내가 자궁수축을 일으킨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1906년이니 벌써 110년 전이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10년에는 유즙 분비 기능을 알게 되었고, 폴리펩타이드 계통의 호르몬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조가 밝혀지고 합성된 호르몬이 되었다. 이 업적을 이룩한 과학자는 1955년에 노벨화학상을 받게 된다. 모두 나의 특별한 역할 때문인 것으로 알아 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소위 '과학'이라는 관점 때문에 나에 대해 구조가 어떻게 기능이 어떻게 하는데, 사실 나의 온전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중요한 관점에서 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우선적으로 정서적인 관계일수록 발 벗고 나선다. 옥시토신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의 뇌에서 가장 활발히 분비된다. 임신 말기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나설 차례라고 알려준다. 나는 자궁 속 태아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조금씩 나를 내보내기 시작한다. 조금이라도 선불리 나서거나 많은 양이 나오게 되면 연약한 태아는 금방 질식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의 순간이다.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분비를 해야 아기를 안전하게 세상 속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도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아기의 입술이 엄마의 유륜에 닿으면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를 내보낸다. 뇌에서 출발하여 엄마의 젖샘을 둘러싼 근육들을 일깨운다. 그리고 유관을 통해 모유를 힘차게 내보낸다. 아기에 대한 엄마의 정서적인 반응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 나는 이런 정서적인 관계가 없으면 일하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에 아니라도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느낌, 친밀한 감정, 측은함, 공감 등이 형성되면 나는 뇌하수체를 떠나 혈액 속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런 관계의 완성을 위해 나를 사용한다.

최근 나의 이런 관계성에 관여하는 특징을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폭식증 등에 나와 같은 옥시토신을 사용하면 상태가 호전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작년 미국 내분비학회 연례회의에서 하버드의대 연구팀은 열량섭취에 미치는 옥시토신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옥시토신이 함유된 약제를 코에 뿌리고 식사를 하면 열량섭취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비만과 대사이상에 나를 사용하며 치료효과가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내가 지방 연소과정을 촉진해서 인슐린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당뇨치료에 대한 나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나에 대해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 대해 온전히 알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나의 화학적 구조를 밝혀내고 똑같이 제조하면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다른 많은 연구들이 보여 주듯이 그

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몸속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과의 협력 관계를 통하여, 내가 역할을 하는 몸의 기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몸 안에서 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호르몬이 보여 주는 근본적인 작용기전의 핵심은 '관계'이다. 어떤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그 기능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호르몬의 도움과 협력, 때로는 반대의 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의 나에 관한 연구 결과들 중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인 관계형성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

하다.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에,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역할을 한다. 작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서 사람이 개와 눈을 맞추고 응시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서로 교감하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바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좋은 호르몬이다.

나의 최종목표는 '관계의 회복'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음식과의 관계.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나는 쓰임받고 싶다. 내가 분비되면 친밀해진다. 아기를 분만하게 하고 수유가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작용은 결국은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나의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작용이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재! 오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상대가 있다면 나의 이름, 옥시토신을 외쳐라! 나는 언제든지 뇌하수체를 박차고 달려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





성신교회 내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성자 하나님의 구원과 성부 하나님의 섭리와 성신 하나님의 적용'에 있다고 고백하였다. 사람에게 대하여 질문하지만 사람을 소재로 삼아 삼위 하나님으로 답하는 데에서 신학적인 성숙함을 보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 담백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2문에서는 그렇게 복된 위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비참-구원-감사'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 '비참-구원-감사'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4문을 중심으로 '율법과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비참-구원-감사'의 삼중적인 구조

제2문은 우리가 유일한 위로를 맛보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묻고 이렇게 답한다.

답: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윤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위로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나의 죄와 비참함', '구원', '감사의 삶'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¹⁾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러한 삼중 구조를 따라서 우선 제3-11문에서는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이어서 제12-85문은 구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86-129문은 감사함에 대하여 가르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요리문답의 형태로 해설하였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러한 전통을 따른다. 그렇지만 그 배열에서는 루터의 요리문답과 차이가 있다. 루터는 '십계명-사도신경-주기도문'의 순서로 배열하였으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율법의 핵심-사도신경-십계명-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랐다. 죄와 비참함에 대한 부분에서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말하고,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도신경을, 그리고 감사함에 대한 부분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룬다. 루터와 달리 십계명을 감사의 삶에 대한 부분에 두는 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독특성이 있다. 구원을 얻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개혁신교회의 전통에 따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처럼 제1문에서 '유일한 위로'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2문에서는 삼중적인 지식을 요리문답의 구조로 사용한다.²⁾ 성경의 교훈을 '위로'라는 명료한 주제로 요약하고,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비참-구원-감사'라는 구조에 넣어서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다. 이점에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오늘날 21세기의 신자들에게까지 큰 유익을 준다.

'얼마나'와 '어떻게'

'비참-구원-감사'라는 단어의 배열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삼중의 구조를 '세 단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율법으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갈등하는 시기가 먼저 있고, 그 단계를 지나면 구원을 깨닫고 확신하는 데에 이르게 되며, 더 나아가면 제자로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사는 데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치 셋째 단계에 도달하면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제2문답은 그러한 단계론적 사고에 제동을 건다. '얼마나'와 '어떻게'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세 가지가 계속하여 서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더 깊이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회개가 어느 지점에서 멈춘다면 구원에 대한 감사도 함께 멈추게 되고, 공허한 종교와 인간적인 열심만 남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다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더 풍성히 맛보게 될 것이다.

'비참-구원-감사'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지는 제115문에서 생생히 볼 수 있다. 십계명을 다 가르친 후에 마지막으로 묻는 115문은 삼중적 지식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1 이러한 삼중적 구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three G'로 표시되기도 한다. 다음의 책 제목들을 보시오. G. W. Bethune, *Guilt, Grace, and Gratitude: Lectures on the Heidelberg Catechism*, 2 vols. (Reprint, Banner of Truth, 2001); J. Hageman, "Guilt, Grace and Gratitude," in *Guilt, Grace and Gratitude*, ed. by D. Bruggink (The Half Moon Press, 1963) 1-19; W. Verboom, "Guilt, Grace and Gratitude: The Heidelberg Catechism in twentieth century Dutch Theology", http://www.heidelbergsecatechismus.nl/publicatie_details.php?type_id=6&publicatie_id=687

2 삼중적 지식을 제목으로 강조한 책은 혹세마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이다. H. Hoeksema, *Triple Knowledge: An Exposition of the Heidelberg Catechism* 3 vol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1972). 그렇지만 이 책은 '삼중적 지식'을 묵회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예정론적인 도식으로 설명한다는 아쉬움을 지닌다. 이 책에 대한 서평으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Fred H. Klooster, "Review Article: the Triple Knowledge", *Calvin Theological Journal* 8 (1973), 204-8.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 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십계명을 '감사의 삶'에서 가르쳤는데, 만일 '구원 받은 신자가 감사함으로 행하는 규범'으로만 십계명을 가르친다면 그 계명을 계속하여 잘 지키고 살라고 말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115문에서는 십계명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 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성신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말한다. '감사함'으로 행하는 십계명은 다시 '죄와 비참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된다. '비참-구원-감사'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115문에서 '더욱 더'라는 말로 세 번 답한 것은 제2문에서 '얼마나'와 '어떻게'로 질문한 것과 호응을 이룬다.³⁾

율법과 사랑, 그리고 비참함

제3문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안다고 가르치고, 제4문에서는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3 M. J. Kater, "Permanent Education: Lessons from the 'je l'engle je mehr' Passages in The Heidelberg Catechism", in The Spiritualit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ed. by A. Huijgen, (Vanderhoeck & Ruprecht, 2015), 280-284.



라틴어2-3문-원본

제4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한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공생애 마지막 주간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이다.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율법의 강령을 말씀으로 전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강령을 친히 온전히 이루신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5문의 표현대로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엄격히 책망만 해서는 바른 회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요리문답은 율법을 가르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삼중적 구조 - 이원론적이고 단계론적 사고와 다른 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기독교 신앙의 주제로 '비참-구원-감사'를 제시하고 또한 '얼마나' '어떻게' 하고 질문함으로 세 부분에서 함께 고루 자라게 하였다. 이것은 '비참-구원' 혹은 '구원-감사'만을 부분적으로 강조하던 16세기의 상황에서 혁신적인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연옥과 면벌부(免罰符)로 위협하면서 '비참-구원'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선행을 강조하면서 '구원-감사'를 말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전하여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된 위로를 제시하였다. 참된 위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비참-구원-감사'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도록 요리문답을 구성하였다. 율법으로 사람의 양심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제시하여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아직 완전케 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아오도록 가르쳤다.

유일한 위로를 '비참-구원-감사'의 삼중적 구조로 제시하고 그 안에서 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어서 신자로 하여금 장성케 하는 이 요리문답은 21세기의 우리에게도 빛을 던져준다.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양분하여, 율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율법과 은혜를 자꾸만 대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에는 '비참-구원'만 있고 '감사의 삶'이 없기 때문에 신자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일에 치중하도록 만든다. 구약과 신약, 혹은 율법과 은혜를 양분하는 이러한 태도는 신자 개인의 삶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 구약과 신약의 시대적인 구분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서, 개인적으로도 율법으로 죄를 철저히 깨닫는 단계가 있고 그 후에 은혜를 맛보는 단계가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틀

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매우 부족하고 또한 신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사람의 삶이 그렇게 도식적이거나 단계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원론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로 '구원-감사'를 강조하는 일도 있다. 신자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죄와 비참함'을 간과하게 되고, 이 부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감사의 삶, 혹은 헌신이라는 것도 피상적이 되기 쉽다. 어느 경우는 그릇된 종교적 열정을 부추기기 쉽고 잘못된 종교 영웅을 만들어 내기 쉽다. 특히 교회가 타락하고 설교가 약해지면 단계론적인 가르침과 위계질서적인 교회 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기계적으로 단계론을 적용하는 데서 파생되는 심리적인 공허감을 메우기 위하여 심리 조작술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 점에서 유일한 위로를 '삼중적 지식'으로 온전히 가르치는 우리의 요리문답은 여전히 큰 울림이 있고 신자의 삶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한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비참함이란 마치 고향에서 쫓겨난 상황과 같다. 실제로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난 우리는 큰 비참함 가운데 떨어졌다. 우리를 그러한 비참한 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주님은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러한 삼중적 지식을 아는 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를 누리는 길로 제시한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리라!

태생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인데다가 성공, 승리라는 용어가 너무 공격적, 이기적, 탐욕적으로 들려서 자주 거론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도 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섭리의 한 과정이다. 이길 때가 있으면 지는 때도 있다. 저 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등, 나는 이기려고 기 쓰고 경쟁에 몰두하는 행동을 천박, 야만, 무식하다고 여기는 사고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 한번 잘못 밟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가 난다. 영적인 상처는 물론이요, 몸이나 내면에도 깊은 상처가 남는다. 영적 지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문화가 가져오는 가공할 만한 혼란의 쓰나미는 신앙인이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성도(聖徒)들에게 부패한 세계관이 마구 접근해온다. 어느 때는 거의 우리를 삼킬 지경으로 파도친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때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창 3:6) 먹거리들이 준비한 시장에서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조금만 값을 치루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이다. 이럴 때 분별력이 발동되면, 미혹에 발 담그지 않으려면, 저기 계곡을 타고 울려나오는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 내려면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야 한다. 이제는 영적 전쟁의 시대이다. 전쟁에서 질 수는 없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겨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믿음의 성공이다.

시험하는 사탄에 대해 할 말은 오직 이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마 4:7)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사탄의 존재는 예측 불가하다. 구원의 주님을 유혹할 정도로 가증스런 힘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맨손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는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 비록 사탄의 패배는 정해져 있으나, 죄와 의 사이에 거하는 우리는 일상에서 유혹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권면하신다. 말씀에 굳게 서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 전도서 기자가 탄식하듯 우리는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잡으려는 것은 뜰구름이나 안개 같은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한 발자국 씩 나아갈 때, 승리는 보장된다.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롬 8:37).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시니 믿음의 동지들이여, 오늘도 기도로 함께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We shall overcome!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스물아홉,

파이어마커스 Fire Markers 대표

청년 이규동의 이야기

젊음,

도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이디터
(이하 에)

넓은 소방 호스나 소방 의류 등을 모아 옷과 가방을 만들어 수익금 일부를 노후화된 소방장비에 지원하는 파이어마커스(Fire Markers, 소방의 흔적) 대표 이규동 청년을 소개합니다. 창업,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오늘, 다른 선택입니다.

이규동
대표
(이하 이)

저 또한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소방관이 되고 싶어 소방학과에 지원했고,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무원 준비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창업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기독교동아리인 C.C.C.에서 연 비즈니스 창업 경진 대회 및 여름 수련회에서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된다', '돈에 너무 집중하지는 말되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저에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다 버리고 헌신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강사분에게 창업에 대한 질문을 풀어냈더니 창업대학원에 와서 같이 공부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선 당연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소방 공무원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창업을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경영 관련 서적들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 본 현실은 뉴스나 신문이 말해 주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관심을 갖고 보니 현실은 더 암담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임원이나 이사직으로 갈 확률은 0.01%도 되지 않고, 대부분은 30대 중후반 늦어도 40대 초반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나이에 재취업이 쉽지 않고 결국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치킨이나 PC방을 하는데 부족한 시장조사와 공급 포화상태로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창업 실패확률이 90%를 웃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고요. 젊을 때 경험이득이 될 것이라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고 결심하여 부모님을 설득하는 제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는 이내 대학원 진학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등록금이었죠. 스스로 벌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 중 C.C.C. 본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치우면 되려니 했는데 하루 종일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청소, 쓰레기 치우는 일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후 정말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조교로 일하면 전액 장학금을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20-30대에 나름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 제가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책을 위주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분들에게 SNS를 통해 연락하고, 직접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생각한 것을 계획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분들의 행동력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청년, 무엇이 과연 위험인가

예 ■ ■ ■ 방선기 목사님이 지난 번 인터뷰(2015.12월호)에서 청년들이 Risk-taking을 하지 않음으로 자기 청춘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감히 청춘 시기에 위험부담을 각오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창업 이후 연세가 가장 힘들었나요?

이 ■ ■ ■ 계속 힘들었습니다(웃음). 매순간이 고비였어요. 창업 관련 지원 사업이 있어서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다들 엉망이라고 하셔서 기대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서류가 통과되었더라고요. 서류합격 후 PT에서 합격자들을 보니 1~2년, 많게는 3년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그들과는 달리 저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열의만큼은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모든 일이 주권자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되든 안되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라는 믿음이 있으니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제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렇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를 개시했는데 제품이 6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저와 팀원들은 만들어지면 당연히 팔릴 줄 알았어요. 6개월의 침묵. 지금 생각해 보면 온라인 판매시 준비되어야 할 세세한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

지 않았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 사이 월세는 계속 나가고 팀원들에게 줄 돈이 없어 뽀뽀이 홀 어지기도 했고, 아버지가 수술하시는 바람에 집안 사정도 어려워져 용돈마저 끊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참 암담하던 그때, 피캐스트(Pikicast)에 저희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업사이클링, 낡은 소방 호스의 재탄생

에 소방 호스, 소방 의류를 수거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왜 '소방'인가요?

이 원래 공공기물은 불용처리라고 해서 폐기처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승인이 나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폐기 처리 대행업체에 수거를 요청하는데, 폐기업체에서도 대개 이걸 쓰레기로 간주해서 불태우든지 버리든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조건으로 쓰레기를 받는 거죠. 저희는 이걸 세척하고 재생산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바로 가방입니다. 판매수익의 일부는 펀딩을 통해 소방관에게 소방장갑을 기부합니다. 사실 국가 소방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이 늘 부족해서 노후된 소방장갑을 소방관들이 직접 구매합니다.



한국의 소방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방관 순직률은 1.85명으로 미국(1.01), 일본(0.7)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소방방재청(2013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7,829대 소방차량 중에 1,654대가 내구 연한을 넘겼고 구급차량의 노후화는 21.3%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방관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착용하는 방화복의 경우 최근 신형 방화복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률은 아직 48%에 불과하며, 나머지 52%는 내구 연한이 지난 구형 방화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소방방재청은 노후장비의 교체 예산만 매년 87억씩 5년간 43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값비싼 소방장비를 교체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1300:1.

한 명의 소방관이 평균 1300명의 안전을 책임진다.


1300명의 시민이 1명의 소방관을 응원하는 날까지



저는 '소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초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디자인위크에서 '소방의 흔적, 스타일이 되다'를 주제로 다양한 패션용품을 만들어 소방 패션쇼도 진행하기도 했고요. 한국은 사실 소방관의 고마움을 알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문화 콘텐츠는 많이 약한 편입니다. 좀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시도해야 될 것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에 ■■■ '사업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건 어떤 걸까?'라는 물음에 하나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윤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세상을 가꿔가는 것,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업을 기독교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창업이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랍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 저도 처음에는 이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는 청년이니까요. 하지만 항상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언론에서 저희를 좋게 이야기해주시는 이런 건 감사하지만 동시에 거품이라고도 생각해요. 앞으로도 사업이 잘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 ■■■ 인터뷰 감사합니다. 

맙스북이 만난 올타리 밖의 책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맙스북'은 사단법인 맙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맙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 Recommend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고야마 카리코 지음 | 오성현 옮김 | 스타북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을 만화로 각색했습니다. 주인공 히카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 원인과 극복에 대한 질문과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만화 중간 중간에는 피케티의 이론을 설명하고 닫는 글에서 피케티와 엠마누엘 토드의 방송 대담을 통해 그의 이론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anksgiving's Think

정책이 황소를 잡는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를 보면 자본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역사적 통계는 전체 국민경제가 생산해낸 소득 성장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걸 보여준다. 상속세와 누진소득세가 경제 격차를 완화해 주지만,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의 격차가 훨씬 커서 실효성이 낮다. 결국, 경제성장, 기술발전, 누진소득세로는 격차를 줄일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월급생활자는 왜 부유해질 수 없는가?” 지난 30년간의 경제성장률 3~4% 중 2~3%는 인구증가에 의한 성장이고,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1~2%에 불과하다. 물론 1%의 경제성장률이 30년간 누적되면 35%나 성장하게 되므로 1%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은 수치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자본 수익률이 3~5%이고 경제성장률은 1~2%라는 걸 감안할 때, 자본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된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자본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산세’, 자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본소득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에 투자하고,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이 쉬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피케티는 ‘경제성장률보다 자본수익률이 높으니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을 구입하라’ 든가 ‘어차피 노동소득으로는 자본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으로 「21세기 자본」을 쓴 것이 아니다. 한국어판 820페이지에 달하는 책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꼭 알아야 하기에 만화로 만들어졌다. 만화라고 가볍게 보지 말고 꼼꼼히 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부동산과 주식을 살 것인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뛰어든 것인지.

keyworld

경제 성장률 | 자본수익률 |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 정책의 필요성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해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서평 『손양원의 옥중서신』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환호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저 |
임희국, 최상도, 이치만 편역 |
넥서스CROSS

옥중서신은 많은 문서들 가운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감옥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심연의 자리에서 가장 깊은 사색을 통해 끌어올린 주옥같은 생각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해 낸 것이기에 당사자가 써 낸 그 어떤 문서나 진술보다 값진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특별히 신앙을 위해 감옥에 들어간 영성가들의 옥중서간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큰 가치를 갖는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비롯하여 존 번연이나 디트리히 본회퍼와 같은 사상가들의 중요한 생각들이 옥중에서 탄생했다. 우리 땅, 우리 시대에도 정약용, 신영복, 문익환, 고영근, 김대중 등 신념 때문에 감옥 또는 유배생활을 했던 많은 인물들의 편지가 책으로 간행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손양원의 옥중서신』은 순교자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의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의 이사장인 이성희 목사는 손양원 목사의 글을 “깊은 신앙과 고결한 삶, 그리고 순교정신이 묻어있는 고백록”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절망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는 글이며, 순교를 넘어 영원한 삶을 고백하는 예언”이라고 하였다. 그의 고백록은 희망을 노래하고 영원을 예언하는 환호성이지만 그것이 깊은 감옥에서 들려오는 것이기에 더욱 진실되고 아름답다.

손양원 목사는 당시 조선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던 나환자들을 위하여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신사참배 거부로 수감되어 술한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가 순교의 문턱에서 해방을 맞이하여 풀려났다. 해방의 혼란한 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폭도에게 살해당하는 비운을 겪었지만 아홉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살해주동자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양아들 삼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신앙의 금자탑을 쌓았

다. 그리고 곧이어 일어난 동족상잔의 전쟁 와중에서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였다.

그의 생애와 관련된 책들이 이미 전기, 사진집, 설교집, 증언문, 동화, 만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왔고,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옥중서신에는 각색되지 않은 손양원의 존재를 실제로 만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이 책의 1부에서는 1941년에서 1945년 7월까지 가족과 교인들이 보낸 편지와 손 목사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을 낱말을 기준으로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현대 국어로 번역, 운문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통한 역사학자들의 자세한 해제를 붙여 그 시대적 정황과 주변관계들을 잘 이해할 수도 있게 하였다. 그리고 2부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친필편지 사진과 그것을 활자화한 원문의 쪽수를 각 편지 상단 우편에 적어 놓아 원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자를 잘 모르거나 근대 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해 놓았다. 성인의 정갈하고 반듯한 친필 글씨를 책의 표지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엽서와 편지글을 통하여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앙인의 서고에 한 권 기념으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손양원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1940년 9월 25일 밤 9시에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틀 후인 1945년 8월 17일에 석방될 때까지 5년의 세월을 옥중에서 지냈다. 종교적 신념이 죄가 되었으니 그의 신앙적 이념과 사상적 신념을 자유롭게 편지로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계속되는 검열과 회유의 과정에서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편지는 검은 색으로 지워진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편지에는 편지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영어생활의 고통에 대하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에 교도관의 친절과 보호를 표현하는 편지들은 많다. 안부를 묻거나 알리고 편지를 주고받는 것 등, 극히 일상적이고 사무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편지들도 많이 보인다. 심지어 그는 “이후부터 편지할 때에 주의할 것은 하나님과 신앙과 관련된 말은 피하도록 하고 다만 안부와 소식 그리고 모든 형편과 사정만 알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다(70쪽). 이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옥중서신을 통하여 손 목사의 신앙과 가치관을 아주 선명하게 읽게 된다. 먼저 독자들은 이 서신들 속에서 하나님을



유정훈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이자 포항 청하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사 학위(B.Th.)를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사회복지학석사(MSW)를,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향한 감사, 기쁨, 은혜, 평안, 믿음과 같은 영적인 보물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1943년 5월 17일 만기출소일을 맞이하였을 때다. 아내와 자녀들은 옥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석방 시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풀려나고 있었지만 손 목사는 끝내 석방되지 못했다. 갑자기 석방이 취소되고 오히려 무기구금형이 언도되었다. 그는 분명히 큰 절망을 경험했지만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遠離本家入獄中 /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夜深獄深滿愁深 /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
夜深獄深人愁深 /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나
與主同居恒喜滿 /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 (후략)

그에게는 감옥도, 추위와 굶주림도, 병환과 고통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스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늘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로하며 기뻐하라고 충고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손양원 목사는 이 편지들을 통하여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설명하였다. 그는 사랑하는 누이 양선에게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오히려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오히려 고난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62~63쪽)”고 하였다. 그에게 감옥은 “배우고 은혜 받는 것도 적잖이 많으니 범사에 다 감사할 뿐(63쪽)”인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신앙의 비밀은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능했다. 편지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안

심하며, 기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가장 실망스럽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신앙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하나님 부존재가 경험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믿음이 고백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존재를 드러내신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다. 손 목사에게 있어서 감옥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다. 그의 편지들은 이러한 십자가 신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을 편지로 담아 내고 있다. 악과 타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력을 다해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주문한다. 그 피 흘림은 사랑으로써 자신을 희생하여 흘리는 피다. 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지향은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마치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해 버린 것 같은 현대 교인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삶에 경종을 울린다. 거룩을 향한 그의 몸부림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포되는 살아있는 메시지였다.

손양원 목사의 편지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보여 주고 있다. 예수님처럼 그는 인간의 정과 욕심에 얽매이지 않았다. 일제와 공산군이 휘두르는 포악한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극한 가난과 영어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여유를 가졌고 만족했다. 그 자유로움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진리는 모든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이 비추면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처럼 그는 당당하고 거침없이 선택하고 실천하

면서 주장했다. 그는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밝고 확실한 진리의 세계를 힘차게 걸어간 것이다.

동시에 그의 편지에는 부친과 가족, 성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뚫어 넘친다. 손양원 목사의 편지들에는 진정한 가족 사랑의 모범과 사랑의 목자로서의 표상이 보인다. 손 목사는 자신의 신앙적 선택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한편 미안해 하였지만 사실은 늘 당당하고 늠름했다. 절대로 형벌 당하는 그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죄를 멀리할 것과 믿음으로 견고해질 것을 훈계하고 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이후 부친은 만주로, 아내는 식모살이로 아들들은 공장으로 더 어린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어찌 보면 완전히 패가망신한 것이다. 교인들도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편지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깊어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앞서 가족을 돌보라고 권면한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시간을 보내고, 사랑의 돌봄을 위해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에게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를 바침으로써 효성스러운 아들이요 공경받는 아버지요 고임을 받는 지아비, 더 나아가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가족을 위한 연민과 사랑의 애가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계속된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처럼 손 목사도 아버님을 걱정한다. 자식에게 쓰는 편지에도, 아내에게 쓰는 편지에도 아버님에 대한 봉양을 계속 부탁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해체되어 가는 현대 가족의 문제에 손양원의 마음가짐이 마치 등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제시한다.

손양원 목사의 서간집은 또한 그 시대적 정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일본제국의 억압과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참상이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우리 민족이 만주와 해외로 흩어져 가는 이민현상과 그 시대의 정보전달과정도 발견된다. 감옥 생활과 감옥 바깥의 둘레사람들이 주고받는 네트워크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언어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도 깨달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교회의 신앙생활 양상도 엿볼 수 있다. 또 최권능, 주기철, 김인서 등 한국 교회사에 우뚝 솟은 영적 거성들과의 관계도 흥미롭다. 역시 영적 거장들은 그렇게 서로 통하고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극심한 검열 때문인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교훈이나 진리에 대한 논의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점이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인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영적 교훈과 모범이 되고 있다. 또 하나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유교적 도덕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삶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 목사는 “큰 성인 공자 (69쪽)”라는 표현을 할 뿐 아니라 삼강오륜의 예절과 도의를 존중하도록 아들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그는 도그마에 얽매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자연의 섭리와 보편적 진리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도인이요 성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6

서평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

신학과 철학을 쉽게 맛보기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추상적이고 학문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겠거니 하고 서평 수락을 하고 편집진으로부터 받아 본 이영진의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는 나의 예상을 빗나갔다. 추상적이라면 서러워할 철학을 초월적 존재를 다루는 신학과 연결하는 작업은 매우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저자는 독자들이 많이 접했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우리에게 그려 주고자 한다. 책 제목이 ‘철학과 신학의 관계’가 아니라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인 까닭이 여기에 있어 보인다.

원래 ‘몽타주’(montage)라는 말은 따로 촬영된 화면들을 영화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이어 붙임으로써 원래 화면들에는 없는 의미를 만들어 내는 기법을 뜻한다. 이는 이 책이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를 매체로 사용할 뿐 아니라,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 저자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를 몽타주라는 영화기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들은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몽타주 기법이 사용된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이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독특한 의미 부여를 감상하면 될 것이다. 몽타주를 통해 드러나는 의미에 공감하면 멋진 영화 한 편을 본 셈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면 될 것이다.

저자는 서양 근대철학이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신 이해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책의 논의를 시작한다. ‘아니오’라는 대답은 이미 신에 관한 강력한 전제를 뚫다. 종교가 없을 뿐이지 신관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6면). 저자가 무신론적 경향을 보이는 근대철학을 신학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는 미켈란젤로가 창세기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시스티나 성당 천장의 〈프레스코〉에 예수님의 12제자 대신 12명의

예언자를 집어넣은 점에 주목한다(15면). 저자에 따르면 미켈란젤로에게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이방 세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15면). 저자는 12명의 철학자들을 다룸으로써 그들 역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피해 그들의 철학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15면).

1장에서 저자는 근대철학의 태동을 이해시키기 위해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소설을 매개로 하여 진리가 선험적인 보편에 있다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신관이 의심받는 과정을 그려 준다.

2장에서 '트루먼 쇼'와 '다크시티'라는 영화를 통해 데카르트가 신과 같이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들을 의심하고 수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물질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뉴턴의 자연과학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는 흄(Hume)이 물질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는 단계에서 칸트가 도덕의 보편성을 확보하

기 위해 주관적 경험에 앞서 있는 선험의 영역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 저자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통해 헤겔이 우리의 현실이 논리적인 법칙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모순된 현실임을 깨닫고 '정'과 '반' 사이의 대립과 모순을 뛰어넘는 변증법적 발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진정한 법의 수호"가 자신의 의를 유지함으로써 법치를 대변한 자 베르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자의 의를 선물받은 장 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점이다(95면). 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기독교의 명제를 장 발장의 삶을 통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 저자는 다윈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 개념을 계승해서 칸트가 비판하고자 했던 회의주의가 습관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습관을 본성에서 생기는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화한 결과로 설명하고자 했



이경직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Konstanz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논문을 썼다. 백석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신학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무처장으로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Platons Raumbegriff』,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철학의 모색』,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플라톤과 기독교』가 있고, 공저로는 『신앙과 논리』, 번역서로는 『사랑의 모델』, 『헬레니즘 철학』, 『철학자 예수』, 『공간 개념』, 『기독교철학』, 『칼뱅』 등이 있다.

다는 점을 강조한다(102면). 저자는 기독교마저 성공주의에 빠져 성공을 진화로 보는 진화론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비판한다(106면). 도킨스는 이기적 성공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타적 사랑과 희생조차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바람직한 돌연변이로 설명하고자 한다(107-109면).

6장에서 저자는 ‘트루먼 쇼’를 통해 마르크스가 주장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 즉 직접 생산자의 이해와 자본 소유자의 이해 사이의 충돌이 ‘부정의 부정’이라는 변증법적 폭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종교를 “관념으로 이루어진 착시”인 아편으로 여긴 마르크스의 견해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확실한 물질 토대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며,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행위를” 실천이라고 부른다는 데 있다(129면). 저자는 마르크스가 그리스도교를 자기 철학의 경쟁자로 여긴 까닭을 여기서 찾는다(129면). 저자는 마르크스가 그리스도교를 오해한 이유를 그리스도교가 상징을 제거하지 않은 데서 찾는다(133면).

7장에서 저자는 ‘쇼생크 탈출’을 매개로 삼아 니체가 사회를 자유를 감금하는 감옥으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한다(138면). 저자에 따르면 니체는 노예도덕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가 가난한 자에게 철저한 복종의 노동만 강요하는 산업사회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니체에 따르면 산업사회의 억압적 구조에서 탈출하는 길은 자살밖에 없는데, 저자는 자살을 “스스로 감옥 생활을 종결짓고 싶은 심판주의 충동으로서 존재한다”고 평가한다(146면). 저자는 그리스도교의 신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부정함으로써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한다(145면).

8장에서 저자는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통해 프로이드의 공적을 “관습과 전통의 강제로 존재하다가 법률의 강제로 발전한” 터부라는(163면) 자기 내면의 우상을 제거한 데서 찾았다(159면). 하지만 저자는 모든 터부를 해체할 때에 우상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모든 믿음이 파괴되는 현실을 우려한다(166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에 결연히 따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167면).


9장에서 저자는 ‘트루먼 쇼’를 통해 하이데거가 존재를 은폐되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의미를 담은 텍스트는 탈은폐되는 해석과정을 통해 생겨난다(178-179면). 저자는 텍스트가 유대인과 같은 특정인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 그리스도에 의해 계속 생성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의 심장에까지 새겨질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다(184면).

10장에서 저자는 ‘큐브’라는 영화를 통해 소쉬르가 그 구조를 “누가, 왜, 어떻게 만든 것일까 하는 인과관계나 목적물”은, 즉 구조의 내용은 묻지 않고 오직 구조만을 다루는 이유를 설명한다(192면). 소쉬르에 따르면 랑그는 “언어활동 연구의 정신적 측면”을 나타내며, 파롤은 “정신적이면서도 물리적인 측면”을 나타낸다(195면). 소쉬르는 구조주의를 인간학에 적용함으로써 언어를 “개별로 형성된 의미체계가 아니라 기호 간의 차이에 의해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197면). 저자에 따르면 소쉬르에게서 기호, 즉 구조가 신이 되었다(199면). 흥미로운 점은 구조주의와 관련해서 저자가 그

리스도교의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 언어로 여기는 입장파와 알아들을 수 없기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정상 언어로 여기는 입장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200면). 저자는 오순절에 임한 방언을 바벨탑의 언어 분열과 연결해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바벨탑의 분열은 탑의 축성에 대한 징벌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확산’이라는 새 창조의 질서이기도 했다(203면). 저자에 따르면 이처럼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확산되지 않고 축성된 채로 방치된 탑/성으로서 예루살렘”을 해체함으로써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보다 넓은 청중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한 “성령의 새 창조”였다(203면). 저자는 방언을 “말하기보다 부지런히 들으라”는 기의 하나와 ...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서 해석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204면). 저자는 방언을 “섭리에 따라 사물에 계시를 부여한 신”의 ‘들으라’는 서명으로 이해한다(204-205면).

11장에서 저자는 ‘식객’이라는 영화를 빌어 라캉 철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신프로이트 학파는 성 본능과 성적 욕구를 생물학적 법칙으로 제시한 프로이트의 과격함을 피하기 위해 “사회 환경과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210면) “정통 심리학을 개개인 심리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상담학으로 축소하고 말았다(223면). 저자에 따르면 라캉은 프로이트의 남근을 결핍 때문에 생기는 ‘타자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환유로 받아들인다(212면). 저자는 가인에 의해 살해된 아벨이 자신의 희생 후에 발언하기 시작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아벨을 “없지만 있는 자”로 규정한다. 그리스도교가 희생 또는 침묵으로 여기는 것을 라캉은 욕망으로 본다.

12장에서 저자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통해 데리다의 철학에 나타난 신 이해를 설명한다. 저자는 “기호의 시대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이라는 데리다의 명제를 받아들인다(229면). 저자에 따르면 ‘시네마 천국’은 해체를 표절이 아닌 작품으로 규정한다. 데리다는 말(파롤)이 “생생한 삶이라고 주장”하여 말을 문자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로고스중심주의를 저자 개인의 음성에만 특권적 지위를 주는 신학이라고 비판한다(234면). 데리다는 원저자의 상황을 보존하는 흔적과 자국을 나타내는 문자인 에크리튀르가 파롤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234면).

저자는 신학과 철학을 몽타주 기법을 통해 연결하고자 한다. 저자의 시도는 이러한 몽타주 연결을 통해 신학과 철학이 이런 식으로 연결될 때 각각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데리다에 의하면 저자의 이러한 시도는 정당화된다. “차이의 이어집이 한 목적에 종사”하기 때문이다(240면). 저자는 이 책의 논의를 통해 해체주의를 주장한 데리다조차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근대 철학의 핵심을 로고스와 관련하여 한 번에 들여다보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신학과 철학의 풍성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연구들이 이 책을 계기로 더 쏟아지길 기대한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81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590,000		기타급여	866,250
	일반회비	5,932,500		소계	4,466,250
	기관후원금	4,5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842,500		사무실관리비	456,000
	CTC후원금	300,000		통신비	651,33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501,710
	연구지원금	700,000		소모품비	78,740
	VIEW후원금	500,000		비품	114,040
	기타후원금	200,000		식비	557,280
				복리후생비	688,880
				퇴직연금	341,398
				컴퓨터	1,430,000
				회계용역비	110,000
				교육비	37,350
				회의비	172,310
기타수입	소계	15,375,000		기타	236,782
	예수금	745,390		소계	5,925,820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6,000,000
	기타수입	14,782		CTC후원금	308,900
				VIEW후원금	996,483
	소계	760,172		학술지원금	1,000,00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1,650,000		소계	8,305,383
	세계관기타수입	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소계	1,650,000		인쇄비	275,000
				발송비	394,74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소계	3,169,740
	학술자심사비	280,000	기타	세금	53,780
	학술지게재료	2,582,500		기타	1,000
	저작권료	520,634		소계	54,780
학회	학회기타수입	4,800,00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행사준비	0
	소계	8,283,134		세계관기타	0
				소계	0
			학회	학회강사료	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술지인쇄비	0
	학술자심사비	280,000		학술지발송비	0
	학술지게재료	2,582,500		학술지심사료	0
	저작권료	520,634		학회기타	100,000
	학회기타수입	4,800,000		소계	100,000
	소계	8,283,134			
당월 수입액		26,583,170	당월 지출액		22,021,973
전월 이월액		49,946,848	차월 이월액		53,993,181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12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675,00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기타급여	100,000
				소계	2,000,000
	소계	1,675,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편집비	300,000
	도서판매비	15,700		디자인비	1,188,000
	예수금	218,360		인쇄비	2,687,740
				소계	4,335,740
	소계	2,734,060	경상비	복리후생비	299,08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200,000		퇴직연금	146,200
				회계용역비	110,000
	미디어장학등록	0		회의비	21,700
	소계	200,000		식비	86,800
				소계	663,780
미디어아카데미			기타	세금	97,590
				기타	4,000
				소계	101,59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행사준비	1,600,000
				미디어비품구입비	52,000
				미디어식비	177,040
				미디어행사준비	308,200
	소계	200,000		소계	2,137,240
당월 수입액		4,584,060	당월 지출액		9,238,350
전월 이월액		32,440,606	차월 이월액		27,786,316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illegible]

계 9,875,0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다온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빛교회,
조은남교회, 성덕교회, 연약교회, 예성교회,
주노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희들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130만 주님의십자가교회

계 5,50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흥성사, DCTY, 오후우스코리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모임] 월드뷰리더(Reader) 공고

함께 모여 <월드뷰>를 읽는 리더Reader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만 읽기 아쉬웠던 분들, 혹은 나누고 싶었지만 나눌 이가 없던 분들 함께 모입니다. 사당역 와우카페에 시작합니다.

- 일시 2016년 2월 4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와우카페 (2,4호선 사당역 인근)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담당 : 김교운 간사)

[세계관대학원 VIEW] 입학설명회 공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의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유학을 계획중이시거나 안식년을 준비중이신 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16년 2월 18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합정역 7번출구 뒤돌아 200m 직진)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02-745-7237 (담당: 홍정석 간사)

[대학원생 모임]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공고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장소와 시간을 공지합니다.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문의 02-754-8004

[정기총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파특보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5년 사역 보고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결산 및 사업 계획 등도 함께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정기총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 외에도 정회원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려 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좋은 자리 잘 준비하여 만나뵙겠습니다.



우리 페친! 카톡친구해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검색하세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친구찾기' → 검색 : (ID)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친구추가, 채팅창 이용

■ 페이스북

'친구찾기' → 검색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좋아요' 누르기, 팔로우!

[구인] 협력간사를 구합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함께 섬길 협력간사를 구합니다. 기독교세계관운동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분을 모십니다.

■ 근무형태 : 협력간사 (시급)

■ 공통지원자격 :

- 1) 신앙고백이 있는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
- 2)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사역에 공감하는 열심과 열정의 그리스도인

3) 기본문서 작성 가능한 분

4)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무조건 :

- 1) 주5일근무 (협의가능)
- 2) 4대보험가입, 퇴직연금 가입(1년이상 재직시), 점심/야근시 식대 제공
- 3) 급여 : 내규에 따름
- 4) 근무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7가길 5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자유형식)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info@worldview.or.kr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기타사항

-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이메일로 접수 후 다음날까지 확인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채용 심사 후 모두 파기합니다)

■ 문의 02-754-8004

1

2

3

4 월드뷰 리더 모임

5

6

7

8 설날

9

10

11 (사무국 휴일)

12 (사무국 휴일)

13

14

15

16

17

18 VIEW 입학설명회

19

20

21

22

23

24

25

26 월드뷰 3월호 발행

27

28

29



이심한 소설책

스스로 잘난 척하는 젊은 여성이 도서관 사서 앞에 책을 하나 던지면서 항의했다.

“뭐 이따위 소설이 있어요! 등장인물은 수백 명이나 되는데 이야기 줄거리는 하나도 없고!
이런 걸 도서관에다 비치해요?”

책을 본 사서: “한참 동안 찾았는데, 전화번호부를 가져간 분이 당신이었군요!” 🌀